

19세기 초 사대부 시가의 한 국면*

- 김이익의 유배가사를 중심으로

정인숙**

1. 머리말
2. <금강중용도가>의 창작 배경과 단락 구성
3. <금강중용도가>의 특징과 의미
4. 김이익의 유배가사를 통해 본 19세기 초 사대부 시가의 한 국면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유와 김이익의 <금강중용도가>를 대상으로 유배가사로서의 특징과 가치를 파악하고 그 문학사적 의미를 모색함으로써 19세기 초 사대부 시가의 한 국면을 짚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금강중용도가>는 유배지에서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용』의 학문적 요체를 노래한 작품으로 인식되어 유배가사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바 이 글을 통해 작품의 진면목이 일정 정도 드러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금강중용도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삶의 기억을 배치하고 자전적 슬희의 면모가 드러나는 점이다. 작품에 배치된 삶의 기억을 따라가다 보

* 이 글은 2015년도 국문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2.11/성신여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김현식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면 작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기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임금으로 대신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임금의 죽음 이후 유배시절을 겪으며 청춘시절에 게을리 했던 경전공부를 다시 하게 된 사정 등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지나온 삶을 간간히 돌이켜보면서 현재의 자신의 존재를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자전적 슬희의 면모가 포착된다.

둘째, 선왕을 향한 충정심과 유배객의 내면 정서가 표출되어 있는 점이다. 작자에게 있어 선왕(정조)은 아버지로 인식된 존재였고 선왕 역시 자신을 자식같이 여겼다고 믿었기에 선왕을 향한 강한 충정심은 작품 곳곳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유배객으로서의 설움과 억울한 심정도 절절히 표출되어 있다.

셋째, 『중용』과 『주역』을 탐독하면서 ‘비신우회(費神寓懷)’의 글쓰기를 보여주는 점이다. 김이익은 금강도 유배지에서 『중용』을 공부하여 『금강중용도』를 그리고 여기에 노래를 지어 <금강중용도가>를 완성했는데 이는 모두 ‘비신우회’ 즉 정신을 쏟고 마음을 부치는 행위였다. 김이익은 단절되었던 도통이 선왕에게 이어졌다고 여겼기에 『중용』을 공부하면서 선왕을 연상하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중용』을 배긴 후 겉표지의 제목에 넣은 ‘금강’이라는 글자는, 죽은 선왕이 꿈에 나타나 자신에게 내려준 약 봉투에 적혀 있던 글자에서 가져온 것이기에 『중용』은 선왕을 기억하게 하는 귀중한 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중용도가>는 유배가사의 흐름을 이으면서도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요한다. 개인적인 삶의 기억을 떠올리고 자전적 슬희의 면모를 보이는 점은 <만언사>와 닮아 있으나, <만언사>가 그 자전적 슬희의 면모가 매우 강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하게 표현된 데 비해 <금강중용도가>는 가족에 대한 언급은 절제한 채 자전적 슬희의 글쓰기가 오히려 선왕을 향한 충정심과 맞닿아 있는 점이 특이하다. ‘나’를 드러낸 글쓰기가 개인의 내면으로 침잠되지 않고 외부로 발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사적인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공적인 자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김이익, <금강중용도가>, 『중용』, 유배가사, 삶의 기억, 자전적
술회, 충정심

1. 머리말

본고는 조선후기 사대부 시가 가운데 유와(漏窩) 김이익(金履翼, 1743~1830)의 유배가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생물연대로 볼 때 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에 걸쳐 88세까지 장수한 그는, 양쪽 시기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으면서 그만의 문학적 색채도 그리 뚜렷하지 않은 듯 보인다. 실제 시가사(詩歌史)에서 18세기에는 권섭(權燮, 1671~1759) 위백규(魏伯珪, 1727~1798), 이정보(李鼎輔, 1693~1766) 등이, 19세기에는 조황(趙桴, 1803~?), 이세보(李世輔, 1832~1895)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면, 상대적으로 김이익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김이익은 안동 김씨 세도가문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후손으로 고조부는 김수항(金壽恒), 증조부는 김창업(金昌業), 조부는 김우겸(金祐謙), 부친은 김유행(金由行)이다. 그는 출사(出仕) 이래 세 차례나 유배를 경험했다. 첫 번째는 1788년(정조 12)에 김치인(金致仁)을 탄핵하다 잘못되어 함경남도 이성(利城)으로, 두 번째는 1793년(정조 17)에 안동부사로 있을 때 환곡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곤장을 맞고 죽은 사건으로 인해 철산부(鐵山府)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다. 그 후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면서 정국이 급변하였고 정순왕후의 친정 세력인 벽파(僻派)가 안동 김씨 중심의 시파(時派)를 견제하면서 1800년(순조 즉위년)에 진도의 금갑도(金甲島)로 방축된 것이 세 번째 유배이다.

김이익의 국문시가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85년으로, 그가 세 번째 유배 시절에 지은 일련의 작품이 영인본으로 공개되었다.¹⁾ 그 후 강전섭 교수와 이상보 교수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김이익의 후손 김태진(金泰鎭) 씨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직접 자료를 열람하여 그 구체적 실상을 학계에 각각

1) 『향토연구』 제1집(충남향토연구회, 1985)에 영인본이 소개되었다.

보고하였다.²⁾ 이들 선행 연구는 김이익의 생애를 살피면서 그의 국문시가의 존재를 알리고 그 자료적 성격을 소개한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금강영언록(金剛永言錄)>이란 제목의 시조 50수(낙장으로 인해 유실된 작품 제외)와 <금강중용도가(金剛中庸圖歌)>라는 가사 1편을 소개하면서 간략한 작품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새 자료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별 작품의 심층적 연구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김이익이 첫 번째 유배시기에 지은 작품으로 『관성잡록(觀城雜錄)』이란 책의 ‘잡저(雜著)’라는 편목에 ‘가곡(歌曲)’으로 수록된 시조 10수가 학계에 보고되었고³⁾ 몇 년 후 시조를 포함하여 『관성잡록』에 수록된 240여 수의 한시가 소개되었다.⁴⁾ 그럴 무렵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가 연구되면서 김이익의 작품도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되었다.⁵⁾ 여기서는 현재 전하는 그의 시조 60수를 분석하여 그 특징으로 유배객의 처지를 노래한 점, 당대사회의 인정물태를 풍자한 점, 후세를 권계하는 교훈성을 드러낸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시조를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물론 작품 수로 보자면 시조가 우세하고 그만큼 그에 게 주요한 문학 장르로 활용된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하는 가사 <금강중용도가>는 그의 생애 후반기 세 번째 유배시절에 지어진 작품으로, 유배가사의 자장 안에 넣어 있으면서도 매우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 작품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다만 자료 소개 차원에서 “금갑도에 유배되어 깊은 우수에 잠겼을 적에 시름을 달래며 지은 장편가사”⁶⁾ 또는 “외롭고 안타까운 마음과

2) 강전섭, 「<금강중용도가>에 대하여」, 『한국학보』 11권 3호, 일지사(한국학보), 1985; 강전섭, 「<금강영언록> 연구서설」, 『동방학지』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이상보, 「유와 김이익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집』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3) 송정현, 「관성잡록 소개 김이익 시조고」, 『조종업박사화갑기념논총』, 태학사, 1990.

4) 송정현, 「김이익의 유배시문 연구-『관성잡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9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5) 정홍모 교수는 「19세기 사대부 시조 연구」(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5)로 학위를 받은 후 박사논문과 몇 편의 논문을 엮어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월인, 2001)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박사논문에서는 김이익을 19세기 작가로 논의했으나 이 후 단행본에서는 18세기 작가로 논의한 점이다.

6) 강전섭, 앞의 논문, 1985, 210면.

임금을 그리는 충정을 노래”⁷⁾한 작품으로 언급되거나, 간혹 유배가사의 연구 선상에서 사대부 문화권의 맥을 잇는 작품⁸⁾으로 간략히 평가된 정도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금강중용도가>가 내용이 유배의 성격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여 유배가사의 범주에서 제외되거나⁹⁾ 범주 설정 단계에서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작품이 언뜻 보기에 중용도(中庸圖) 제작 이후 『중용』의 학문적 요체를 설명하는 데 주력한 작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내용의 일부분은 『중용』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기는 하나 결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대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금강중용도가>가 처음에 한문으로 짓고 그 옆에 국문을 붙인 형태였는데, 해배 이후 가져온 책이 일부 유실될 때 본래 작품도 사라졌다가 아내가 예전에 국문가사 부분을 베껴놓은 것을 찾으려 이틀 다시 베끼고 한역을 붙여 최종적으로 완성한 작품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된 작품인 셈이다. 또한 아내가 일찍이 남편이 지은 국문가사를 읽고 손수 베껴두었다는 점, 그 덕분에 유실된 작품을 되살릴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안동 김씨 가문 내 가사 소통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한편 <금강중용도가>는 가사의 한역 양상을 논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한역가가 어구 하나하나 어순까지 동일하게 번역된 점이 특징으로 지적되었다.¹⁰⁾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사의 한역이 후손이나 후대인이 이전 시기에 지어진 훌륭한 가사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 작품은 작자 스스로 국문가사의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한 사례이므로 사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타의 가사 한역 작품들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기 곤란하다고 본다.

7) 이상보, 앞의 논문, 12면.

8) 양정화, 『유배가사의 담론 특성과 사적 전개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4, 148면.

9) 최현재, 『조선시대 유배가사의 흐름과 경향성』, 『한국시가연구』33, 한국시가학회, 2012, 67면.

10) 김문기, 『가사 한역의 목적과 한역기법』, 『국어교육연구』29, 국어교육연구회, 1997, 42면 ; 김문기, 『가사 한역가의 현황과 한역양상』, 『모산학보』10, 동아인문학회, 1998, 29면.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목되지 못했던 김이익의 <금강중용도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작품의 고유한 특징을 밝힘으로써 19세기 초 사대부 시가의 한 국면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이익의 국문시가 전반을 아우르는 다층적 이해도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2. <금강중용도가>의 창작 배경과 단락 구성

<금강중용도가>는 김이익이 진도의 금갑도로 세 번째 유배를 가서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강중용도가서(金剛中庸圖歌序)』와 『금강영언록소서(金剛永言錄小序)』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가사 <금강중용도가>의 서문이고 후자는 시조 <금강영언록>의 서문으로, 그가 유배지에서 국문시가를 짓게 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향년의 내 섬 속 귀향 늑년의 니른바 지은 것과 벗긴 것과 무릇 뼈 정신을 허비하고 미음을 브친 바 글이 거의 스십여칙이 되는 고로 밋 도라을 췌 다 가져와 즈손들노 혀여곰 내 경녀흔 거술 알게 혀려 흠이니 그 중 금강중용도와 가는 진실노 내 정신 허비하고 미음 브치기롤 더흔 거시러니 일전의 다른 칙들과 흠씨 상고하니 이 칙의 도는 잇고 가는 업는지라. 가는 진서로 쓰고 그 곁히 언문으로 뺏는지라. 생각건대 부녀들이 보고 즉시 거두지 못하였다가 반이할 췌의 우연히 빠지은 거시라. 비록 심히 앓가오나 또흔 홀일 업서 혀더니 이제 망실 황부인 유희 가운데 당신의 스스로 무근 칙녀의 벗긴 바롤 어드니 그 뜻이 가히 고맙고 그 일이 우연치 아니흔지라. 감창하고 위로하는 미음으로 곱끼인 눈을 뺏고 친히 벗기고 인하여 진서로 미초차 니로니 반드시 그췌의 날은 진서와는 다름이 만혀려니와 글인즉 완비흔지라. 이에 그 곡절을 쓰노라 신스 복월 상순에 유와 칠십구세옹은 쓰노라.¹¹⁾ (밑줄 필자)

11) “向余於島竄六年 所謂述製也膽繹也 凡所以費神而寓懷者 殆四十有餘冊 故及歸也 盡數輸來聊以示子孫俾知余經歷之如何 其中金剛中庸圖與歌 寔余費神寓懷之最者也 日者並他搜之則圖在而歌無 歌則蓋以眞書書之而傍書以諺 故想婦女輩取見而不卽收 偶遺於搬徙之際 雖甚惜之亦無奈矣 今於亡室黃夫人遺篋 得當身所自移膽於退曆者 其意可向 其事不偶矣 遂以愴慰之心 拭眩眼而手謄之 仍追成其眞書之作 必多與伊時之作相舛而篇則完矣 茲題其顛末 時辛巳復月上旬 隔窩七十九歲翁書” (『金剛中庸圖歌序』, 밑줄 필자)

우선 『금강중용도가서』는 한문 기록과 국문본이 함께 필사된 형태로 전한다. 내용을 보면 이 서문은 유배시기(1800~1805)가 아닌 해배 후 그의 나이 79세 되던 신사년(辛巳年, 1821) 음력 11월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올 때 그가 6년간의 유배기간 동안 짓고 베낀 글 40여 책을 다 가져온 것은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보니 <금강중용도>는 있으나 <금강중용도가>는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한문으로 짓고 국문을 옆에 써 놓아서인지 부녀자들이 즉시 거두지 못하다가 반이(搬移)할 때 우연히 빠지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죽은 아내의 유협(遺篋)에서 아내가 일찍이 묵은 책력에 국문가사를 베껴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베끼고 한역도 다시 붙여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이익이 유배지에서 글을 짓고 베끼며 지낸 것이 ‘정신을 허비하고(쏟고) 마음을 부치는[費神寓懷]’ 행위였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금강중용도>와 <금강중용도가>는 가장 마음을 쏟았던 것이었기에 더욱 애착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에 소개할 『금강영언록 소서』에도 <금강중용도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서럽고 애통한 마음과 쇠약하고 병든 몸으로 오히려 낭독과 묵송(默誦)도 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시를 읊조리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으며 더구나 국상 절차도 끝나지 아니하여 팔도강산 전역이 풍류를 그칠 때이겠는가. 오직 주역과 중용을 봉독(奉讀)하면서 등사(謄寫)하고 때때로 한 가지 이치라도 얻음으로써 밤낮으로 심회에 붙이는 자료로 삼았더니, 이제 중용도(中庸圖)도 다 이루어진 여가에 비로소 가사 수백 언을 지었으니 또한 통곡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어 병들어 자리에 누운 지 수개월이 지났으니 눈도 어둡고 손도 떨려서 오랫동안 읽고 쓰기를 멈추고 할 일 없이 소일하면서 우연히 몇 편의 단가(短歌)를 지었다. 하루 이를 얻은 것이 점차 적지 않게 되었는데 모두 내 속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러기에 어찌 격조와 음향을 따져 버리고 거두어 둘 것을 논하겠는가. 이에 수시로 얻고 수시로 기록함에 또한 순서도 없으니, 대개 젊었을 때 과문(科文) 공부할 때의 난고(亂稿) 모양과 매우 흡사하니 또한 가소롭지 않겠는가. 이것은 입술년 8월 11일부터 시작한 것이다. 9월 8일에 새옹은 유배지 금갑도에서 쓰다.¹²⁾ (밀줄 필자)

『금강영언록소서』는 국문본 없이 한문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유배지에서 『주역』과 『중용』을 읽고 베껴며 지내면서 중용도를 완성하고 연이어 국문가사(‘가사 수백 언’)를 지었으며, 그 후 병들어 누운 지 수개월 지나 단가(시조) 몇 편(<금강영언록>)을 지었는데 이는 임술년(壬戌年, 1802) 8월 11일부터 시작한 것이고 9월 8일에 그 서문을 쓴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금강중용도가>는 <금강영언록>보다 수개월 먼저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금강중용도가>의 내용으로 보아 임술년 봄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¹³⁾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금강중용도가>가 ‘통곡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한 데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제목만 보자면 『중용』의 학문적 요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법하나, 스스로 밝힌 것처럼 실상은 자신의 심회를 절절히 풀어낸 작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국문가사를 통해 어떻게 사연을 풀어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강중용도가>는 4음보 1행 기준으로 286행¹⁴⁾의 장편가사이다. 작품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1행~10행 : 서사, 청춘시절의 회고와 반성
- (2) 11행~18행 : 『중용』을 다시 읽게 된 소회
- (3) 19행~45행 : 두 스승 공자·주자에 대한 생각
- (4) 46행~71행 : 동방의 성리학 전래와 예악문물의 정비
- (5) 72행~110행 : 선왕(정조)의 칭송과 49세 요절의 안타까움

12) “余以衰窶之棕 衰病之喘 猶不遑朗讀默誦 況時詩之云而詠之乎 況歌之云而唱之乎 又況國制未闕 八域溫密之時乎 唯以義經思傳之奉觀瞻寫 時附一得爲日夕寓心之資 今於中庸圖已成之餘 始作歌詞數百言 亦出甚於慟哭之意也 繼以有疾委席已過數朔 眼眩手戰 久廢瓶寫 無賴消遣 偶成數腔短歌 一日二日所得 轉轉不些則皆出吾腔 奚論格調音響而不收而有之乎 茲以隨得隨錄 亦無彙序 蓋與少時科文亂稿之樣 十分恰似矣 不亦可笑哉 寔自壬戌八月旬後而始之云 重九前一日 塞翁書于棘中”(『金剛永言錄小序』, 밑줄 필자)

13) 김익익이 금강도에 유배된 것은 1800년(순조 즉위년) 12월로 확인되는데, 작품에 동짓달(11월) 내용이 나오고(“동지돌 녀오일의 천극을 더으시니”) 그 다음해 맞이한 봄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삼스삭 얼는 지나 올봄이 되엿고나”) <금강중용도가>는 1802년(임술년) 봄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 선행 연구에서는 ‘574구, 287행’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이상보, 앞의 논문, 12면) ‘행’을 ‘구’로 착각하면서 ‘285구’로 제시되기도 했는데(강전섭, 앞의 논문, 1985, 212면) 확인 결과 286행이 맞다.

- (6) 111행~122행 : 선왕을 보필한 17년간의 기억
- (7) 123행~137행 : 경신년 납월 선왕과의 몽중 재회
- (8) 138행~145행 : 입조 후의 기억과 유배 여정의 묘사
- (9) 146행~165행 : 『주역』의 입수와 선왕에 대한 그리움
- (10) 166행~178행 : 『중용』의 입수와 <금강중용도>의 완성
- (11) 179행~251행 : 『중용』의 학문적 이해 서술
- (12) 252행~286행 : 결사, 억울한 심정 호소와 선왕에 대한 충정심 표출

위를 토대로 작품의 단락 구성 양상을 살펴보면 (3), (4), (11)과 같이 『주역』과 『중용』의 경전 이해와 성리학적 사유를 담고 있는 부분이 일정 정도 배치되어 있으면서 (1), (6), (7), (8)과 같이 개인적 기억을 환기하는 대목도 있고 (9), (12)와 같이 자신의 소회를 과감히 드러낸 부분도 발견된다. 다시 말하면 <금강중용도가>는 금강도 유배로 인해 『중용』을 다시 읽고 그 학문적 깨달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듯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지나간 삶의 기억을 더듬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유배객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발견된다. 이는 곧 이 작품을 유배가사의 맥락에서 읽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3. <금강중용도가>의 특징과 의미

3.1. 기억의 배치와 자전적 술회의 면모

우선 <금강중용도가>에는 자신의 삶의 기억이 배치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나’의 과거 또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처음 글공부를 시작한 때로부터 청춘시절의 방황, 선왕(先王)인 정조(正祖)와의 인연, 꿈속에서의 재회, 유배지로 가는 여정의 기억, 『주역』과 『중용』을 얻어 탐독하게 된 사연 등이 서술되어 있다.

어화 독서 군자들(은) 이내 말씀 드러보옵 於話讀書君子背 此吾言之聽見
 세상의 삼긴 글이 만흠도 만홀시고 世上所在書 多乎多乎哉
 스셔오경 제즈빱가 그 엇지 다 님을손가 四書五經諸子百家 其何以盡讀哉
 날궤흔 무식흔 것 천자문 동몽선습 썬힌 후의 如我無識物 千字文童蒙先習畢後
 서산 펴고 님은 글이 아마 열권 못다 되니 展書算讀之書 且不過十卷
 표동인 부동인 칙문동인 이 밧기는 다시 몰나 表東人賦東人策問東人 此外不復知
 이렇저렇 청춘시절 어름 우렷 박미듯 밧근동 지내치니 此樣彼樣青春時節 水上推瓢滑滑過
 이도 임의 애똥거든 주스청누 투전장기 그 쏘 무슴 좃시던가 此已可恨 酒肆青樓投錢將棋又何等所爲
 빅슈잔년 되년후의 위리 속의 드리안져 白首殘年後 圍籬裡入坐
 지는 일 회탄흔들 기 님 알고 기특달가 過去事悔歎 其誰知而奇特云

위는 단락 구성상 (1)의 서사부분으로 ‘독서군자(讀書君子)’를 청자로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며 작품이 시작되는 대목이다. 여기서는 지나간 청춘시절을 회고하면서 세상에는 글이 많기도 많고 사서오경(四書五經) 제자백가(諸子百家)를 어찌 다 읽겠냐고 하며 자신은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을 뎡 후 서산(書筭)¹⁵⁾을 펴고 읽은 글이 열권이 채 못된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글공부를 소홀히 하며 어영부영 젊은 시절을 보낸 것도 한스러운데 심지어 주사청루를 드나들며 투전장기에 빠졌던 것을 생각하니 회탄스럽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춘시절의 방탕한 삶을 회고하는 내용은 안조원의 <만언사>에서도 확인되는데,¹⁶⁾ <만언사>에서는 이를 패기 넘치는 남아의 생애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다

15) ‘서산’이란 글을 읽은 횡수를 세는 데 쓰는 물건으로, 봉투처럼 만들어 곁에 홈을 내어서 접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과 밖의 색을 달리하여 접힌 부분이 쉽게 눈에 띄게 하였다. 홈은 대개 열 개를 내며 접은 눈금을 헤아려 글을 읽은 횡수를 센다.

16) “천금준마 환소첩을 소년노리 더욱 좃타/ 자궁믹상 변화성을 나도 잠깐 호오리라/ 이전 마음 전혀 있고 오십 방향 홀연나니/ 빅마홍흔 귀헛 벗과 유협경박 다짜른다”

는 점에서 자기과시의 감정을 엿볼 수 있었다면¹⁷⁾ <금강중용도가>에서는 후회와 반성의 정서가 강하게 느껴진다.

초야천신 이 내 몸이 조년의 아버 여히고 草野賤臣此吾身 早年喪父
 마흔 후 통적허야 이런 성주 만나오니 四十後通籍 如此聖主遭逢
 아모 지조 우원 업고 우직으로 자허하니 某般才元無 愚直自許
 지신막여 네즈 하교 또 두어 일노 포장허샤 知臣莫如四字下教 又以數事褒獎
 고든 심장과 춤지상을 이런 몸의 허허시고 直心腸眞宰相 如許身許之
 허위세계의 독불연허고 피츠 무당허 즈지신이 虛僞世界獨不然 彼此無當自在身
 나만 밋고 든일아신 전후 스교 루루허샤 但恃予而行之 前後辭教縷縷
 즈식긋치 보시기를 십칠년이 여일하니 如子視之 十七年如一
 늬 모로논 군신제우 암지긋극 업술손가 他不知之君臣際遇 暗地猜克無乎
 비록 이를 짐작허나 죽어 감기 기약더니 雖於此而斟酌 死以報爲期約
 덩호룽비 못밧들고 천실의욕 못허오니 鼎湖龍飛未攀 泉室蟻蓐未效
 무비천신의 박복이며 무비천신의 부은일다 無非賤臣薄福 無非賤臣負恩

위는 단락 구성상 (6)에 해당하는 대목으로, 초야(草野)에 묻혀 살던 자신이 조년(早年)에 아버지를 여의고 나이 마흔 넘어서 늦게 통적(通籍)¹⁸⁾한 후 성주(聖主)를 모시게 된 사연이 서술되어 있다. 부친 김유행이 죽은 해는 1760년으로 그의 나이 18세 때였다. 자신은 아무런 재주도 없으나 다만 우직(愚直)함으로 자허(自許)¹⁹⁾하니 황송하게도 임금께서 ‘지신막여(知臣莫如)’라는 네 글자를 하교(下教)하고 몇 가지 일로 포장(褒獎)²⁰⁾한 기억을 떠올린다. ‘지신막여’란 ‘지신막여군(知臣莫如君) 즉 ‘신하를 아는 이로써 임금만한 이가 없다’는 의미인데, 이 네 글자를 하교했다는 것은 바로 선왕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신하로서 신뢰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

17) 정인숙, 『<만연사>에 나타난 자전적 슬화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25, 한국시가학회, 2008, 145면.

18) ‘통적’이란 문표(門標)에 이름을 올리면 궁문(宮門)의 출입을 허락하던 일을 뜻한다.

19) ‘자허’란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인정함을 뜻한다.

20) ‘포장’이란 칭찬하여 장려함을 뜻한다.

졌다. ‘나만 믿고 다녔다’는 구절에는 임금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과시하고픈 마음도 엿보인다. 심지어 ‘자식같이 보시기를 십칠 년이 한결같았다고 한 구절에서는 그가 임금과의 관계를 부자(父子)의 차원으로 깊게 인식했음이 확인된다. 그렇게 임금에게 사랑을 받다보니 이를 시기하는 자들이 생기고 뜻하지 않게 임금이 죽자 그 애통함은 말할 수 없게 된다. ‘정호용비(鼎湖龍飛)²¹⁾ 못 받들고 천실의욕(泉室蟻蓐)²²⁾ 못 하오니’라는 구절에서 임금을 따라 죽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단락 구성상 (7)에서는 경신년(1800년)에 정조가 죽고 같은 해 납월(음력 12월)에 꿈속에서 선왕을 뵈었던 일을 상세히 묘사한다. 여기서는 선왕이 자신에게 직접 약을 하사했던 꿈을 생생히 기억해 내며 이를 하나의 장면처럼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립도훈 후 두세 일은 오늘날이 응당하고	立朝後二三事 今之日應當
지름업시 취승하니 과복지지 당연하디	無才能驟陞 過福之災當然
하환무스 괴군 두즈 이 아니 지원훈가	何患無辭欺君二字 此豈不至冤乎
가묘의 하직하고 엄정이 창황하디	家廟下直 嚴程蒼黃
화산송벽 바라보고 도방의서 통곡하니	華山松柏望見 道傍慟哭
북풍한설 모습 일노 이내 간장 더욱 녹니	北風寒雪何事 此吾肝腸尤消矣
빙정곤마 겨요 모라 열흘만의 도비하니	氷程困馬艱驅 十日到駢
풍속은 엇더하디 거처는 과분하디	風俗何如 居處過分

21) ‘정호용비’란 중국 고대 황제(黃帝)가 형산(荊山) 아래 정호(鼎湖)에서 용을 타고 승천했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이다. 그 전설은 다음과 같다. 황제가 수산(首山)의 구리를 캐어 형산 아래에서 세발술[鼎]을 만들었다. 술이 완성되자 용이 턱수염을 드리워 황제를 맞이했는데 황제가 올라타자 따라 오를 뜻 신하와 후궁이 70여 명이었다. 용이 올라가니 나머지 신하들은 오르지 못하고 용의 턱수염을 잡았으나 턱수염이 뿔혀 떨어지고 황제의 활도 떨어졌는데, 황제가 이미 하늘에 오른 것을 백성이 우러러보고는 그 활과 턱수염을 안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22) ‘천실의욕’에서 ‘천실(泉室)’은 죽은 후 저승의 거처를 가리키고, ‘의욕(蟻蓐)’은 ‘개미를 쫓고 잠자리를 만든다’는 뜻으로 죽은 임금을 따라 죽어 황천에서 임금을 보좌함을 의미한다. ‘의욕(의의)’은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 공왕(共王)에게 안릉군(安陵君)이 “대왕께서 승하하신 뒤에 이 몸이 황천에 따라가서 잠자리를 만들고 개미를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한다.

위는 단락 구성상 (8)에 해당하는 것으로 억울하게 쫓겨나 금갑도로 유배되어 오는 여정을 회상하는 대목이다. 입조(入朝)한 후 특별한 재능도 없이 취승(驟陞)²³⁾하였으니 복이 지나쳐 생기는 재앙[過福之災]은 당연하다 할지라도 ‘기군(欺君)’ 즉 ‘임금을 속였다’는 죄목은 어찌 원통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한다. 여기서는 ‘하환무사(何患無辭)’라는 말을 끌어오고 있는데 이는 ‘욕가지죄(欲加之罪) 하환무사(何患無辭)’ 즉 ‘죄를 주려고 하는데 어찌 핑계거리가 없음을 걱정하랴’는 데서 나온 것으로, ‘기군’이라는 죄목이 자신을 시기하여 내쫓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임을 명백히 알리고 있다. 유배지로 향하는 여정은 참담하고 비통하게 기억되는데, 가묘(家廟)에 하직 인사를 올리고 화산(華山) 송백(松柏)을 바라보니 길가에는 통곡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때는 겨울이라 북풍한설(北風寒雪)마저 자신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얼음이 언 길로 곤마(困馬)를 겨우 몰아 열흘 만에 유배지에 도착하니 풍속은 어떠한지 모르나 거처는 오히려 과분하다고 회상한다.

그 다음으로 (9)와 (10)의 단락에서는 『주역』과 『중용』을 몇 달 간격으로 얻어 보게 되면서 이를 탐독하며 공부해 온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몇 차례나 베끼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마음을 쏟아왔던 지난 시절을 구구절절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이 두 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이처럼 <금강중용도가>에 배치된 삶의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려볼 수 있게 된다. 일찍 아버지를 여윈 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임금으로 대신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임금의 죽음 이후 유배시절을 겪으며 청춘시절에 게을리 했던 경전 공부를 다시 하게 된 사정 등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렇게 지나온 삶을 간간히 돌이켜보면서 현재의 자신의 존재를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자전적(自傳的) 술회의 면모가 포착된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삶을 겪어 왔는지 기억을 들춰냄으로써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마음속의 응어리도 풀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23) ‘취승’이란 직위가 갑작스럽게 뛰어오름을 뜻한다.

3.2. 선왕을 향한 충정심과 유배객의 내면 정서 표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자에게 있어 선왕은 아버지로 인식된 존재였다. 선왕 역시 ‘자식같이 보시기를 십칠 년이 한결같았다’고 기억하면서 선왕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작품 곳곳에서 선왕을 향한 충정심이 발견된다.

원수의 경신년을 업시코져 녹갑중의	怨讐之庚申年 六甲中欲去之
이히 납월 새벽꿈은 어이 그리 정녕턴고	是歲臘月曉夢 何爲其丁寧
거동소의 입시하니 천신 하나 뿐이로되	舉動所入侍 賤臣一介已矣
룡안은 이열호오시고 옥음은 춘온호오서	龍顏怡悅 玉音春溫
전석종용 상시모양 가인부즈 더욱 꺾히	前席從容常時貌樣 家人父子尤似之
룡포로 약을 내샤 어슈로 주오시니	龍袍出藥 御手賜之
봉피 우희 세 즈 쓴 것 금중강이 분명하다	封皮上三字書 金中剛分明
기복호여 밧즈와 관복 속의 너흔 연후	起伏受之 官服裡納然後
상하슈작 다쇼광경 그 어이 다 기록홀이	上下酬酌多少光景 其何以盡記
환궁거동 지송호고 꿈을 문득 썬아나니	還宮舉動祇送 夢於是覺
새벽 달빛 창냥흔더 니웃 둬이 자조 우니	曉月蒼涼 隣鷄頻唱
흰 벼개의 업드리니 피눈물 절노 나니	素枕伏泣 血淚自出
새는 날 기다려 희몽서를 상고하니	曙日俟之 解夢書考見
님금이 약을 주셔 뵈면 일신이 무양타 호엿더니	人君賜以藥 一身無恙云
이 꿈 후 오륙일의 이 내 몸이 되엿고나	此夢後五六日 此吾身爲矣

위는 단락 구성상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조가 죽은 경신년 같은 해 납월에 새벽 꿈속에서 선왕을 만난 장면을 묘사한 대목이다. 용안(龍顏)은 이열(怡悅)하고 옥음(玉音)은 춘온(春溫)한데 조용히 평상시 모습으로 대면하고 있으니 ‘가인부자(家人父子) 더욱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임금과 신하의 모습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왕이 용포 속에서 꺼내어 준 약의 겉면에 ‘금중강(金中剛)’이라는 세 글자가 분명하게 적혀 있음을 기억하면서 꿈속에서 수작(酬酌)하던 광경을 어찌 다 기록하겠느냐며 감격해 한다. 그러다 꿈을 깨고 보니 선왕은 간 데 없이 새벽 달빛만 창

랑하고 허탈한 마음에 베개에 엎드리니 피눈물이 절로 난다고 소회를 드러낸다. 여기서 죽은 선왕을 몽중 재회한 기억이 이후 작품 전개에 있어 중요하게 환기된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금갑도 유배시기에 지은 여러 저술에 ‘금강(金剛)’이라는 제목이 들어가게 된 것도 바로 여기서 연유한 것인데 이는 다음 절에서 다시 상술하도록 하겠다.

전년 그레 즉시 죽어 혼이야 있고 업고 昨年再昨年卽時死 魂則有也無也
 빅을 갈라 붉힌 후의 만강단혈 다시 밋쳐 割腹明之後 滿腔丹血更結
 옥난 아래 도현하고 물너나와 견마되어 玉欄下朝見 退而爲犬馬
 새 님군씩 길너나서 세세보은 올습거늘 新主前育出 世世報恩可矣
 무슨 목숨 대단타고 그 결단을 못하고서 此命何大段 其決斷未爲
 지금 이리 완지하니 목석도곤 더흔 거시 내로고나
 至今如是頑支 其於木石卽吾

위는 단락 구성상 (12)에 속하는 부분으로 선왕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선왕이 죽은 후 자신도 즉시 죽어 혼이야 있고 없고 배를 갈라 억울함을 밝힌 다음 마음속 가득 찬 붉은 피를 다시 맺어 새 임금께 충성하며 대대로 은혜를 갚아야 함이 옳은 데도, 무슨 목숨이 대단하다고 그 결단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뜻을 고집하고 있으니 목석보다 더한 것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고 있다. 실제 김이익은 성격이 타협을 모르고 저돌적이었다고 하는데²⁴⁾ 위 대목에서 그런 점이 확인된다. 아울러 정조의 죽음 이후 어린 순조 대신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고 경주 김씨 노론 벽파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권력에 의해 내침을 당하게 된 정치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리 생각 저리 생각하니 이 내 몸 엇지 살가
 此而思彼而思 此吾身何以生
 필경 이럴진디 이 글 넓어 어디 쓰며
 畢竟至此 讀此書焉用
 이 그림 잇다 혼들 내 몸의 뜨엇히리
 此圖雖有 於吾身何爲
 생각이 이에 미치니 만렘이 춘지로다
 思之及此 萬念冷灰

24) 정홍모, 앞의 책, 103면.

화증이 설음으로 조차나매 벌떡 니러안자 火症從哀出 蹶然而而坐
이 그림 이 노래 가져다가 내 믿음과 상의하니

此圖此歌持來 與吾心相議

이 세계를 당하야 김싱홀 길 만무하매 當此世界 萬無更生路
조각조각 쓰저내야 화로 속의 슬오고저 片片裂出 火爐中欲燒之
장장이 헤쳐다가 벽희슈의 띄오고저 張張披去 碧海水欲泛之
이리하나 저리하나 뉘 이서 말닐손가 此之爲彼之爲 有誰挽之
어화 그러치 아니하다 이 노래 속의 언필칭 선왕하와

於話不然矣 此歌中言必稱先王

천신이 향안 압히 이서 듀야로 성궁을 호위함 ㄱ트니

賤臣若在香案前 晝夜護聖躬

애지중지 중지애지하야 춤아 감히 손으로 못업시 ㅎ노라

愛之重之重之愛之 忍而不敢手毀之

위는 작품의 마지막 결사부분으로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선왕에 대한 충정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앞서 『금강영언록소서』에서 <금강중용도가>를 가리켜 ‘통곡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한 데서 나온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이 작품에는 유배객의 참담한 심정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르며 지내고자 하나 이리 저리 생각해 봐도 살방도가 없음을 깨닫게 되자 ‘화증(火症)’이 ‘설음’을 좇아 일어난다고 하면서, 갱생(更生)할 길이 만무하므로 그림이며 노래를 조각조각 찢어내서 화로 속에 태워버리고 장장이 뜬어서 벽해수에 띄우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표출하기에 이른다. 이는 유배객으로 느끼는 울분과 원통함 등 내면의 응어리진 정서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노래 속에 언필칭(言必稱) 선왕이 있어 마치 자신이 향안(香案)²⁵⁾ 앞에서 주야로 성궁(聖躬)²⁶⁾을 호위하는 것과 같아서 감히 없애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선왕을 보좌했던 지난 날이 담겨 있고 선왕을 향한 마음이 구구절절 새겨져 있기에 애지중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선왕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담은 단

25) ‘향안’이란 제사 지낼 때 향료(香料)나 향합(香奩)을 올려 놓는 상(床)을 말한다.

26) ‘성궁’이란 임금의 몸을 말한다.

심가(丹心歌)라 할 수 있다.

3.3. 『중용』과 『주역』의 탐독과 ‘비신우회(費神寓懷)’의 글쓰기

공자(孔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었다고 하는 『중용』은 조선조 유학자들에게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책이다. 조선초기에는 주자(朱子)의 『중용장구(中庸章句)』와 그 서문 등을 중심으로 한 주자학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중기에는 다양한 분절 방법을 통해 『중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했고, 후기에는 조선조 유학자들의 해석을 종합하여 『중용』의 진면목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²⁷⁾ 특히 17세기에는 유교 경전에 대한 주석을 유달리 많이 남겼는데 사단칠정(四端七情), 인심도심(人心道心) 등 성리학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면서 그 근거를 경전에서 구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²⁸⁾

사서(四書) 가운데 『대학(大學)』과 『중용』은 『논어(論語)』, 『맹자(孟子)』와는 달리 한 편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글로서 전체적으로 논리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기에 조선시대 학자들은 이 두 책을 연구할 때 도표를 그려 구조와 요지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조선시대 학자들이 『중용』을 해석하면서 그린 도표는 140여 개나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圖) 옆에 설(說)을 붙여 설명해 놓은 것도 다수 확인된다.²⁹⁾ 중용도의 예로는 권근(權近)의 『중용수장분석지도(中庸首章分釋之道)』를 비롯하여 박인로(朴仁老)의 『중용성도(中庸誠圖)』, 김춘택(金春澤)의 『중용달도달덕지도(中庸達道達德之圖)』 등을 들 수 있다.

김이익은 『중용』과 『주역』을 매우 중요시하여 읽고 베끼며 그 의미를 깨닫고자 했다. 특히 『중용』의 경우 자신이 이해한 바를 ‘도(圖)’로 그리고 여기에 ‘가(歌)’를 지어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을 허비하고(쏟

27) 서경요, 『한국유학에서의 『중용』 해석학의 역할』, 『유교문화연구』12,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8, 29~30면.

28) 안병길, 『『중용』 해석과 17세기 조선조 유학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6, 한국유교학회, 1993, 478면.

29) 최석기, 『조선시대 中庸圖說』, 보고사, 2013 참조.

고) 마음을 부치는’ 곧 ‘비신우회(費神寓懷)’의 행위였는데, 그가 온갖 정력을 다 쏟아 부으며 이에 매달린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중용서 훈 권칙을 몇히만의 다시 보니	中庸一卷冊 幾年後更見
어화 이 책이야 도흠도 도홀시고	於話此冊 好哉好矣
공자님 호오신 말씀 즈스씨 지으시고	孔子主所言 子思氏述之
즈스씨 지은 글을 주즈괴서 주를 내서	子思氏所述書 朱夫者出註
네상 일과 네상 말의 성현도덕 다 실녜니	例常事例常言 聖賢道德俱載

위는 단락 구성상 (2)에 속하는 부분으로 작품 초반에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공자가 한 말씀에 자사가 짓고 자사가 지은 글을 주자가 주를 달았다고 하며 『중용』은 성현도덕(聖賢道德)이 다 실려 있는 귀한 책이라 언급하고 있다. 공자와 주자를 자신의 두 스승으로 인식했던³⁰⁾ 김이익에게 『중용』은 중요한 책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중용』은 선왕(정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책이었다.

어화 드르시옵 우리 선왕 정종대왕	於話聽之 我先王正宗大王
동방의 성주 나사 총명예지 거룩홀샤	東方聖主作 聰明睿知出常
열성을 계승호샤 요순우탕 또 나셨니	列聖繼繩 堯舜禹湯復出
간단힘조 다 것그샤 천복을 바드시디	艱難險阻盡闕 天祿受之
남면무라 그런 성호 천고빅왕 다투출가	南面無樂如許聖孝 千古百王誰及之
혹관천인 본분스로 칙검군스 즈임호샤	學貫天人本分事 責兼君師自任
정일심법 다시 닷가 술성슈도 힘쁘시고	精一心法更修 率性修道是力
종통대의 병집호샤 만고강상 붓드시니	宗統大義秉執 萬古綱常扶之
그 다투라서 옛즈와시며 그 다투라서 돕즈와실가	其誰告之 其誰贊之

위는 단락 구성상 (4)에 속하는 부분으로 동방의 성주(聖主) ‘정종대왕(正宗大王)’이 도통(道統)을 잇고 열성(列聖)을 계승(繼繩)한 요순우탕(堯舜禹湯)과 같은 임금이라는 점을 밝힌 대목이다. 정일심법(精一心法)을 닦

30) “어화 내 스승은 공자주자 두분일다 於話吾之師 孔子朱子兩分”

고 솔성수도(率性修道)에 힘쓰며 종통대의(宗統大義)를 가지고 만고강상(萬古綱常)을 바로 잡았다고 칭송하고 있다. 즉 단절되었던 도통이 선왕에게 이어졌다고 여겼기에 공자·주자의 사상이 담긴 『중용』을 공부하고 도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왕을 연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작자는 금갑도에서 지내면서 『중용』보다 『주역』을 먼저 얻어 보게 되는데, 다음 대목에 그가 이 책에 몰입하게 된 정황이 포착된다.

놀란 혼은 수습흔들 서론 회포 어디 두고	驚魂雖收拾 痛懷何所寓
책권이나 빌 도리를 동니 스람 년비하야	冊卷借來道 洞內人連臂
서당마다 간걸흔들 뉘가 날을 보고 빌닐손가	
	書堂到處懇乞 誰見我而借之
습사삭 거의 지나 주역 혼질 어더보니	數三朔殆過 周易一秩得見
삼십년전 보던 면목 쇼경의게 단청일다	三十年前所見面目 盲瞽之於丹青
병든 소리 천축하야 넘어보든 못하야도	病聲喘促 讀見則不得
세 번 네 번 벗겨내고 훈고스지 산절하니	三番四番翻謄 訓話至於刪節
처음보다 빅승하야 알듯알듯 하니그려	視初百勝 若知若知耳矣
다섯 권의 논화 띠야 제목을 쓰려다가	五卷分東 題目將寫
홀연 생각 전년 꿈을 내 스스로 희득하니	忽然思之前年夢 吾自解得
금갑도 가온더 혼자 안자 강유지니 귀경흠을	
	金甲島中獨坐 剛柔之理翫見
선왕이 권념하샤 미리 아니 니르신가	先王眷念 其非豫告之乎
이리저리 생각하니 춤아 잊지 니줄손가	此而彼而思之 何忍忘乎哉
금강 두즈 가져다가 책마다 제목하야	金剛二字持來 隨冊以此題目
이내 믿음 붓쳐두고 쯤나 자나 보려터니	此吾心寓置 寤寐欲見

위는 단락 구성상 (9)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역』을 얻어 공부하게 된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뜻밖에도 딱딱뜨린 낯선 유배상황에 ‘놀란 혼은 수습흔들 서러운 회포는 어디 두겠느냐’라고 하며 그 서러운 회포를 달래기 위해 책권(冊卷)이나 빌리려고 서당마다 찾아가 간걸(懇乞)하게 된다. 무엇인가 다른 곳에 몰두해야만 괴로운 나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서너 달 지나 어렵사리 『주역』 한 질을 얻자 세 번 네 번 베끼고 훈고(訓話)까지

산절(刪節)하며 몰두하게 된다. 그런 다음 이를 다섯 권으로 나눠 매고 제목을 쓰려는데 홀연 지난 해 꾸었던 꿈이 생각난다. 선왕이 내린 약의 봉피 위에는 ‘금중강(金中剛)’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를 ‘금갑도 가운데 혼자 앉아 강유지리(剛柔之理)를 구경’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선왕이 권념(眷念)하여 미리 아니 이르신 것인가’라고 스스로 해득(解得)하게 된다. 즉 ‘금중강’은 ‘금갑도’의 ‘금(金)’과 ‘가운데’의 ‘중(中)’과 ‘강유지리’의 ‘강(剛)’ 이 세 글자를 딴 것이라 이해한 것이다. 여기서 ‘강유지리(剛柔之理)’란 『주역』 『설괘전(說卦傳)』에 나오는 ‘강유(剛柔)’라는 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괘전』 제1장에는 “음양(陰陽)에서 변화를 관찰하여 괘(卦)를 세우고 강(剛)과 유(柔)를 조절하여 효(爻)를 정하였다”³¹⁾는 구절이 있고 제2장에는 “하늘의 도를 세워 음(陰)과 양(陽)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 강(剛)과 유(柔)라 하며 사람의 도를 세워 인(仁)과 의(義)라고 한다”³²⁾는 구절이 있다.

이처럼 작자는 선왕을 몽중 재회 한 기억을 환기하면서 ‘금중강’에서 ‘금강’ 두 글자를 가져다가 책의 제목을 삼게 된다. <금강중용도>, <금강중용도가>, <금강영언록>, <금강유경편>, <금강계몽> 등의 일련의 저술들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금강’이라는 두 글자가 선왕이 자신의 운명을 예지(豫知)한 데서 나온 것으로 결국 ‘금강’은 선왕이 그에게 남긴 말이자 선왕을 기억하게 하는 흔적이라는 점이다.

삼스삭 얼는 지나 올봄이 되엿고나	三四朔旻過 今春已屆
유인사름 고마워서 중용 훈 권 어더 주니	主人可感 中庸一卷得給
내 절머실 때 드르니 성현문장 바른 길이	吾於少時聞之 聖賢門牆正路
다른 경서 고사하고 이글이 으뜸이라 흐매	他經書姑捨 此書爲元云
업는 기력 강작하야 세 번재 벗겨낸 후	所無氣力強作 至于三次膽出後
제목을 쓰고 보니 몽중삼즈 더욱 완연	題目寫而見 夢中三字益宛然
오운은 점점 먼디 이를 보니 백비 설의	梧雲漸漸遠 見此百倍哀
정력을 허비하야 그림으로 그려내니	精力虛費 以圖寫出
미소오지 내 알손가 선군싱각 여긔 붓쳐	微辭奧旨吾知乎 先君之思付於茲

31)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32)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유아블니 이 두 글에 망설춤는 업슬손가 晝夜不離此兩書 妄說僭論豈無哉
 이러코 저러코 이 그림 펴고 보니 此乎而彼乎而 此圖展見
 어화 괴특하다 사람의 사람된 일 괴특하다 於話奇特哉 人之爲人奇特

위는 단락 구성상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용』을 얻어 공부하게 된 과정을 서술한 대목이다. 없는 기력을 억지로 내어 세 번이나 베껴낸 후 ‘금강’이라는 제목을 쓰고 보니 다시금 몽중 삼자(‘금중강’)가 더욱 완연하고 선왕이 생각나 더욱 서럽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선왕을 만났던 꿈이 그에게 매우 중요한 계기로 거듭 인식되는 점³³⁾ 의미심장하다. 작자는 『중용』을 베끼는 데 그치지 않고 정력을 쏟아 그림으로 그려내어 여기에 선왕 생각을 부치고 지내게 된다. 이렇게 『주역』과 『중용』에 몰두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지으며 ‘비신우회’한 것은 자신의 설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선왕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뜻밖에 맞닥뜨린 낯선 유배상황을 견디기 위한 자구책이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된다.

4. 김이익의 유배가사를 통해 본 19세기 초 사대부 시가의 한 국면

정조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된 19세기는 세도정권의 등장, 민란의 발생, 천주교 박해, 서구열강의 침입 등 조선왕조의 다층적인 격동 시기라 할 수 있다. 18세기 이래 진행된 봉건해체기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어 본격적인 대립과 투쟁으로 현상된 시기로 논의되기도 한다. 문화예술사의 측면에서는 18세기 이래 도시의 발달과 도시 유흥공간이 확대되던 양상이 19세기에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보면서 “풍요로움과 빈곤, 다채로운 발전과 반동적 굴절 등 상호 모순되는 양상들이 중첩”³⁴⁾된 시기로 평가된다. 18세기가 도

33) “만일 그 꿈 안이런들 주역중용 생각이나 흐며 萬一非其夢 周易中庸思之乎/ 만일 이곳 안이런들 이 공부룰 엇지하리 萬一非此處 此工夫何爲也/ 이려도 선왕 은혜 저려도 선왕 은혜 此亦先王恩惠 彼亦先王恩惠/ 일헌 단지 길이 업서 일노 더욱 이통하다 一獻丹墀無路 以此尤爲哀痛”

시 중인층을 중심으로 한 여향예술이 꽃을 피운 시기라면 19세기에는 세도 정권의 등장으로 봉건적 억압이 강화되면서 중간계층이 봉건적 특권층에 밀착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논의된다.³⁵⁾

19세기 시가사에서 김이익은 그리 비중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살았던 인물로 18세기 또는 19세기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귀속되지 못했던 듯하다. 그런데 진도 금감도에서의 세 번째 유배기간 동안 지은 국문시가는 창작시기가 19세기 초임이 확실하고, 더구나 18세기 함경도 이성에서의 첫 번째 유배기간에 지은 작품들과는 결을 달리하는 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³⁶⁾ 19세기 초 시가로 한정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사 <금강중용도가>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배가사의 흐름을 이으면서도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요한다.

전통사회에서 유배는 형벌의 하나이지만 문학 창작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했고 실제로 훌륭한 작품을 남긴 문인도 적지 않다.³⁷⁾ 시가사에서도 유배시가는 그 차지하는 바가 크데, 특히 유배가사는 평소의 생활 터전에서 방축되어 머나먼 적소(謫所)에서 겪은 체험을 다양하게 담아낸 작품이 많기에 꾸준히 관심을 받아 왔다. 16세기 조위(曹偉)의 <만분가(萬憤歌)>를 시작으로 정철(鄭澈)의 <사미인곡(思美人曲)>과 <속미인곡(續美人曲)> 등이, 17세기에는 조우인(曹友仁)의 <자도사(自悼詞)>, 송주석(宋疇錫)의 <북관곡(北關曲)> 등이, 18세기에는 김춘택(金春澤)의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이진유(李眞儒)의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 이광명(李匡明)의 <북찬가(北竄歌)>, 이공익(李肯翊)의 <죽창곡(竹攄曲)>, 안조원의 <만언사> 등이, 19세기에는 김진형(金鎭衡)의 <북천가(北遷歌)>, 채귀연(蔡龜淵)의 <채환재적가(蔡宦再謫歌)> 등이 그동안 주로 논의되어 왔다. <금강

34) 고미숙, 『19세기 시가사의 시각』,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13면.

35)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 세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3, 87면.

36) 김이익의 나이 46세 때 이성에서 지은 시조와 그의 나이 60세 때 금감도에서 지은 시조는 정서가 현격하게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정치적 상황의 차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게 된 심리적 변화도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홍모, 앞의 책, 108~109면 참조)

37)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7면.

중용도가>는 처음 지어진 때가 1802년이고 유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것이 1821년으로 시기상으로는 <만언사> 다음에 위치한다.

우선 <금강중용도가>는 개인적인 삶의 기억을 떠올리고 자전적 슬화의 면모를 보이는 점에서 <만언사>와 닮아 있다.³⁸⁾ ‘나’의 과거를 들추며 지나온 삶을 회고한다는 것은 ‘사적(私的)인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는 아플 수도 있는 과거를 밖으로 꺼내어 놓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연민을 느끼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 작품은 작자가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지은 것이어서 노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반추하는 태도가 기저에 깔려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런데 <만언사>의 경우 그 자전적 슬화의 면모가 매우 강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절실하게 표현된 데 비해, <금강중용도가>는 가족에 대한 언급은 절제한 채 자전적 슬화의 글쓰기가 오롯이 선왕을 향한 충정심과 맞닿아 있는 점이 특이하다. 예를 들면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읜 사실을 고백하고 청춘시절 글공부를 소홀히 하고 방탕하게 보낸 기억을 더듬은 것은 모두 선왕과 관련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선왕이 대신하면서 부자관계로 각별히 인식하게 되었고 꿈속에서 선왕이 내린 세 글자로 인해 『주역』과 『중용』을 탐독하면서 청춘시절에 못다 한 글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나’를 드러낸 글쓰기는 개인의 내면으로 침잠되지 않고 외부로 발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선왕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사적인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공적(公的)인 자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유배가사를 임금에 대한 연군·충절의식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전기의 작품들과 이러한 연군·충절의식이 상당히 약화되고 그 대신 유배로 인한 고초와 심경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후기 작품들로 양분하여 논의했는데³⁹⁾ 특히 후기 유배가사의 주요한 특징으로 유배지에

38) <만언사>에는 자신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자전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배 체험 곳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특징이 발견된다.(정인숙, 앞의 논문 참고)

서의 육체적 고통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중시되는 양상이 부각된 바 있다. 그런데 <금강중용도가>는 시기상으로 상당히 후대에 지어졌고 장편가사로서 자전적 슬회의 면모를 보이고 유배객으로서의 심정을 절절히 토로하면서도, 유배의 원인부터 정치성을 진하게 띠고 있고 작품의 내용도 충절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점에서 전/후기 유배가사의 이분법적 논의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 물론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을 설정하고 군신관계를 남녀관계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형상화하는 전기 유배가사의 전형적인 서술방식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북찬가>나 <만언사>, <채환재적가> 등과 같이 정치적 색채가 탈색된 작품들과는 분명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이익의 신분이 관료를 경험한 사대부였고 정조의 죽음을 전후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놓여 있던 인물이라는 점은, <북찬가>의 작자 이광명이 처음부터 출사의 뜻을 접고 서울을 떠나 강화도에 숨어 지냈던 인물이고 <만언사>의 작자 안조원과 <채환재적가>의 작자 채귀연이 모두 중인 신분이었던 것과 사뭇 다른 점으로, 그러한 신분이나 처지의 차이가 작품의 내용에도 일정 정도 차이를 가져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금강중용도가>는 전/후기의 거시적 구도에서 한 발 떨어져 19세기 초 사대부 유배가사의 한 국면으로서 그 개성적 특징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금강중용도가>에서 『중용』과 『주역』이 유교 경전 가운데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점은 일찍이 두곡(料谷) 고응척(高應陟, 1531~1605)이 『대학(大學)』과 『중용』의 깨달음의 요체를 시조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사례와 비교될 만하다. 고응척은 특히 『대학』에 담겨 있는 이념을 시조로 형상화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가 시조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은 시조야말로 그것을 향유하는 이들에게 교술적 이념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었기 때문이라 논의된 바 있다.³⁹⁾ 이와는 달리 <금강중용도가>는 『중용』의 학문적 깨달음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유배지에서 『중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준 선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왕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사라

39) 최현재, 앞의 논문, 67면.

40) 송재연, 『고응척의 시가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194면.

는 장르를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긴 호흡으로 자신의 정서를 토로하는 데는 가사가 적합했으리라 짐작된다.

여기서 <금강중용도가>가 한역과 더불어 국문으로 지어졌고 이를 아내가 베껴둔 덕분에 다시 복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금강중용도가서』에서 ‘가(歌)는 진서(眞書)로 쓰고 그 곁에 언문으로 썼다’고 했고 실제 작품 원문 상으로도 한역을 먼저 쓰고 그 옆에 한 칸 내려 국문으로 써 놓았기에 마치 한역이 중심이 된 것처럼 여겨지나, 한역의 양상이 국문가사의 어순에 정확히 맞춰 하나하나 충실하게 직역된 것으로 보면 국문가사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가 국문가사를 지은 것은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개방적인 장르였고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문가사는 여성들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문 내 여성독자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금강중용도가서』에서 <금강중용도가>가 ‘부녀들이 보고 즉시 보고 거두지 못하였다가 반이할 때 우연히 빠진’ 이유가 이 작품에 한문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추정하는 것은, 그가 가문의 부녀자들이 한문 해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여성독자들을 위해서는 국문기록이 필요함을 느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더구나 그가 ‘자손들로 하여금 내가 경력(經歷)한 것을 알게’ 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아, 어떤 방식으로든 유배지에서의 삶을 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목되지 못했던 김이익의 <금강중용도가>를 유배가사의 맥락에서 재조명함으로써 19세기 초 시가의 한 국면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언뜻 보기에 『중용』의 학문적 깨달음을 전하는 데 주력한 작품으로 여겨지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배가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밝혀낸 <금강중용도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기억이 배치되고 자전적 술회의 면모가 드러나는 점이다. 작품에 배치된 삶의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작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려 볼 수 있게 되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기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임금으로 대신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되었고, 임금의 죽음 이후 유배시절을 겪으며 청춘시절에 게을리 했던 경전공부를 다시 하게 된 사정 등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지나온 삶을 간간히 돌이켜보면서 현재의 자신의 존재를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자전적 술회의 면모가 포착된다.

둘째, 선왕을 향한 충정심과 유배객의 내면 정서가 표출되어 있는 점이다. 작자에게 있어 선왕(정조)은 아버지로 인식된 존재였고 선왕 역시 자신을 자식같이 여겼다고 믿었기에 선왕을 향한 강한 충정심은 작품 곳곳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유배객으로서의 설움과 억울한 심정도 절절히 표출되어 있다.

셋째, 『중용』과 『주역』을 탐독하면서 ‘비신우회’의 글쓰기를 보여주는 점이다. 김이익은 금강도 유배지에서 『중용』을 공부하여 <금강중용도>를 그리고 여기에 노래를 지어 <금강중용도가>를 완성했는데 이는 모두 ‘비신우회’ 즉 정신을 쏟고 마음을 부치는 행위였다. 김이익은 단절되었던 동통이 선왕에게 이어졌다고 여겼기에 『중용』을 공부하면서 선왕을 연상하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중용』을 배긴 후 겉표지의 제목에 넣은 ‘금강’이라는 글자는, 죽은 선왕이 꿈에 나타나 자신에게 내려준 약 봉투에 적혀 있던 글자에서 가져온 것이기에 『중용』은 선왕을 기억하게 하는 귀중한 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금강중용도가>를 재조명하는 데 집중하다보니 조선후기 유배가사 작품들과 전면적으로 대비하여 논의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다만 <만연사>와 비교 논의하는 정도에 머문듯한데 후속 논문을 통해 <만연사>를 포함한 조선후기 유배가사 작품들을 망라하여 전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18세기가 문학연구에서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면 상대적으로 19세기는 소홀히 해 온 감이 있다. 앞으로 이 시기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금강중용도가>(『한국학보』11권 3호, 새자료②, 일지사(한국학보), 1985)

2. 단행본

정홍모,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1~331면.

최석기, 『조선시대 中庸圖說』, 보고사, 2013, 1~710면.

3. 논문

강전섭, 『금강중용도가』에 대하여, 『한국학보』11권 3호, 일지사(한국학보), 1985, 209~212면.

강전섭, 『<금강영언록> 연구서설』, 『동방학지』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215~301면.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 세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3, 1~285면.

고미숙, 『19세기 시가사의 시각』,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11~22면.

김문기, 『가사 한역의 목적과 한역기법』, 『국어교육연구』29, 국어교육연구회, 1997, 23~43면.

김문기, 『가사 한역가의 현황과 한역양상』, 『모산학보』10, 동아인문학회, 1998, 271~308면.

서경요, 『한국유학에서의 『중용』 해석학의 역할』, 『유교문화연구』12,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8, 21~37면.

송재연, 『고옹척의 시가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1~234면.

송정현, 『관성잡록 소재 김이익 시조고』, 『조종업박사화갑기념논총』, 태학사, 1990.

송정현, 『김이익의 유배시문 연구-『관성잡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9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129~151면.

안병길, 『『중용』 해석과 17세기 조선조 유학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6, 한국유교학회, 1993, 477~506면.

양정화, 『유배가사의 담론 특성과 사적 전개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4, 1~184면.

이상보, 『유와 김이익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집』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5~43면.

정인숙, 「〈만언사〉에 나타난 자전적 술회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25, 한국시가학회, 2008, 135~169면.

정홍모, 「19세기 사대부 시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5, 1~165면.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7~31면.

최현재, 「조선시대 유배가사의 흐름과 경향성」, 『한국시가연구』33, 한국시가학회, 2012, 63~93면.

An Aspect of Sadaebu's Poetry in the Early 19th Century - Focused on Kim Yi-ik's Exile Gasa

Jeong, In-s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 aspect of sadaebu(士大夫)'s poetry in the early 19th century focused on Kim Yi-ik's exile gasa <Keumgangbongyongdoga(金剛中庸圖歌)>. This text was written in the place of exile but this text has never been studied as a exile gasa in detail. Because researchers have misunderstood this text for a song of *Chongyong*(中庸).

The characteristics of <Keumgangbongyongdoga> is as follows. The first, we can find the expression of self-thoughts in this text. The father of Kim Yi-ik was dead in his youth, he regarded the king as his father. He also believed that the king regarded him as a son. We can understand his life through this text. The second, we can find the sense of loyalty for the king. He had a special love for the king, he expressed unchanging mind in this text. We can also find the emotion of exiled person. The third, Kim Yi-ik read the two books *Chongyong* and *Chuyue*(周易), and he devoted his energies to writing. He studied and copied *Chongyong*, he was seem to recall the king.

<Keumgangbongyongdoga> is under the category of exile gasa, but it has some unique characteristics. This text resembles <Maneonsa> in terms of the expression of self-thoughts. But we can find the expressions of family in <Maneonsa>, we cannot find in <Keumgangbongyongdoga>. Kim Yi-ik was seem to strengthen his public persona by exposing himself through this text. This text shows an aspect of sadaebu's poetry in early 19th century well.

keywords: Kim Yi-ik, <Keumgangbongyongdoga(金剛中庸圖歌)>, *Chongyong*(中庸), exile gasa, memory, expression of self-thoughts, a sense of loyalty

접수일자: 2015. 3. 31.
심사기간: 2015. 3. 31.~2015. 5. 10.
게재결정: 2015. 5. 10.